<화학섬유>

원료와 수요자 중간 화섬기업 최악

PTA가격 764달러 합의

94년 4/4분기 폴리에스터섬유의 원료인 PTA(고순도테레프탈산)의 국내 공급가격이 톤당 764달러로 결정됐다.

국내 최대 PTA 공급기업인 삼성석유화학은 3/4분기 가격 698달러에서 9.7% 인상한 766달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KI · 고려석유화학 · 삼남석유화학 등 국내 생산기업들과 합의를 거쳐 3/4분기대비 9.5% 인상된 764달러로 최종 합의, 수요기업들인 PTA 화섬기업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TA 생산기업들은 PTA 원료인 P-X(파라자일렌)의 4/4분기 공급가격이 3/4분기대비 파운드당 4센트, 프리미엄 0.5센트씩 인상되었음을 내세워 P-X 인상분만큼 PTA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화섬기업들은 계속되는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비싼 점을 감안한다면 수입대체도 곤란해 PTA 공급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신속한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TA 해외 공급기업들의 4/4분기 가격을 보면, Virchlay 870달러, Amoco 840달러, MPC 815달러, CAPCO 790달러를 형성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내 공급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계속 폭등세에 있는 PTA는 95년 1/4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져 톤당 950여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폴리에스터장섬유 등 화섬기업들의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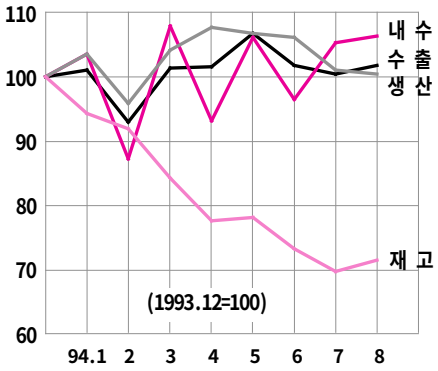
또 94년 4/4분기 P-X 가격이 최종적으로 파운드당 28센트, 프리미엄 1센트로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X와 PTA의 수급 타이트로 향후 P-X 가격은 파운드당 32센트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1】 4대 합성섬유 생산 · 재고 실적(1994)

(단위 : M/T)

구 분	아크릴단섬유		나일론장섬유		폴리에스터장섬유		폴리에스터단섬유	
	생산량	재고량	생산량	재고량	생산량	재고량	생산량	재고량
1월	16,345	7,030	19,369	12,486	59,120	23,422	42,392	11,616
2월	14,739	7,168	17,821	11,379	55,003	22,502	38,603	11,662
3월	16,329	6,591	20,953	10,720	61,471	21,328	39,232	9,471
4월	17,014	6,845	20,481	9,446	60,979	20,154	39,894	7,756
5월	17,233	7,641	21,333	8,490	64,295	19,627	42,560	8,835
6월	16,173	7,403	20,627	7,994	63,308	17,615	38,516	8,750
7월	16,387	6,893	20,686	8,009	62,981	16,188	36,383	8,231
8월	16,322	6,402	20,491	7,717	64,321	16,341	37,097	9,537

【그림】 전체 화학섬유 수급지수(1994)



94년초 PTA 가격은 국내 공급가격 기준 톤당 560달러를 나타냈으며, 95년초 PTA 공급가격이 950달러를 형성할 경우 1년만에 69.6%라는 큰폭의 가격인상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PTA의 69.6%라는 가격인상과는 달리 95년 1/4분기 폴리에스터장섬유 공급가격은 파운드당 99센트를 유지해 94년초 80센트에서 25% 인상에 그칠것으로 보여 수요기업들의 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폴리에스터장섬유 생산기업들은 원사가격 파괴에 이어 원료가격 폭등 등 계속되는 악조건이 겹치면서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3년 폴리에스터장섬유 업계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원사가격이 폭락했고, 94년은 원료인 PTA와 EG(에틸렌글리콜)의 가격상승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대책마련에 부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동양폴리에스터 · 코오롱 · 삼양사 · 동국합섬 · 대한화섬 · SKI 등 국내 생산기업들은 지난 10월말부터 각기업별로 95년 경기전망을 토대로 사업계획 및 대응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대책마련을 위해 초비상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폴리에스터장섬유시장은 대부분 로칼시장 의존도가 높고, 직물업계의 경쟁력유지 차원이라는 주장 앞에 원료기업과 수요기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빠른 대응책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폴리에스터중합 생산시설이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에스터장섬유 원사 공급은 타이트감을 보이고 있어 화섬업계의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93년 공급과잉으로 가격파괴 · 자율 조업단축 등의 기현상을 보였던 화섬업계는 최근 수요가 확대되면서 각기업마다 공급난에 허덕이는 등 94년들어 폴리에스터장섬유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수요기업인 직물 · 편물 등의 생산기업들이 급격히 생산설비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94년들어 직물업계의 고속직기 증설물량이 6000대이상 예상되고 있고, 경편물업계의 컴파운드기 증설도 200대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폴리에스터장섬유 생산기업의 원사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가격폭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수요기업들의 신증설분이 공급기업들의 생산설비분을 웃돌아 공급난을 부추기고 있고, 계절적인 비수기도 원사 수요폭주에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합섬원료 동남아지역 거래가격

(단위 : 달러/MT)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AN	520~550	585~625	625~700	680~730	700~800	750~800	800~900
CPL	980~1,100	950~1,100	950~1,130	980~1,130	1,175~1,250	1,200~1,300	1,250~1,400
PTA	680	710	710	710	755	755	755
EG	330~390	335~420	335~420	355~420	420~450	430~480	430~660

화섬사 저가정책으로 경쟁력 확보

국내 화섬사 가격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기업의 해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리에스터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나이론장섬유는 대만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폴리에스터장섬유 75D의 국내 로칼가격은 파운드당 99센트로 거래되고 있으나 일본은 1달러30센트, 폴리에스터단섬유는 국내가가 69센트인 반면 일본은 80센트, 대만은 72센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일론장섬유 70D는 국내 거래가격이 파운드당 1달러45센트이며, 대만도 이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화섬기업들이 저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폴리에스터장섬유의 경우 많은 공급기업과 신규기업들의 시장참여에 따라 로칼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폴리에스터단섬유는 국내 수요기업들인 면방기업들의 시장경쟁력 약화에 따라 직수출보다 내수판매가격을 훨씬 낮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94년8월말 기준 국내 섬유수입액은 33억2300만달러로 계속 증가세에 있고, 수출은 113억2000만달러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8월은 제품수입이 93년동월대비 80.5% 대폭 증가한 1억1400만달러를 나타냈고, 유럽산 고가제품과

중국산 저가제품으로 확연히 구별돼 수입되고 있다.
부분별로 보면, 원료는 10.8%, 사류는 31.3%, 직물류는 23.5%로 각각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39.1%를 차지했고, 유럽지역이 38.2%로 4억300만달러를 기록했다.
8월의 전체 화학섬유 생산량은 7월대비 1.4% 소폭 증가한 14만144톤, 재고량은 4만2473톤으로 2.8% 증가했다.
아크릴단섬유는 생산량이 0.4% 소폭 감소한 1만6322톤, 재고량은 7.1% 감소한 6402톤으로 나타났다.
아크릴단섬유는 그동안 바닥세를 보였던 EG 원료가격이 94년초부터 상승되기 시작해 8월 동남아가격이 430 480달러까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1994/12/1>